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09월 28일(수) 저녁 7시0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55장(통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마태복음(마)18:21-35(p.30) 가족 중에서
- 말 씀 /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군가 내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21-22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베드로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21절상).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었으나 4번째 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7번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답하며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21절하).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답해 주십니다(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용서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되 용서하게 되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15-20절 참조)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러면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은 완전수로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의 수치요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곱 번을 완전수인 일곱 번의 10배나 되는 일흔 번씩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490번을 넘어서 무한한 용서 즉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한 용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 예수님이 용서에 관하여 하신 비유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23-34절)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 즉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23절).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24-25절상). 그때 왕은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을 때(25절하). 그 때 그 종이 왕에게 엎드려 ‘다 갚을테니 참아 달라’고 했고(26절), 이에 그 종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

겨서 종의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27절).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억박지르게 됩니다(28절). 이 종의 친구도 종처럼 ‘다 갚을테니 참아달라’고 하였는데(29절) 이 종은 자기 주인처럼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억박지르고 빚을 갚으라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30절).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친구들이 종의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려주게 되었고(31절) 주인은 자기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칭하며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을 해 주었으면 종도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노하여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32-34절). 사실 100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인데 반해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므로 일만 달란트는 60,000,000데나리온(오늘날 200억 상당의 금액)으로 꼬박 165년을 일한 일용직 노동임금의 전부를 주어야 하므로 종으로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빚도 탕감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니 한 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3.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35절)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하는 듯 하면서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가 없으면 결국 용서를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35절). 진정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마음으로부터 경험한 자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 1.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2.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게 하소서.
- 3.재개발조합의 사업이 속히 잘 진행되고, 교회의 건축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 4.가을의 계절의 변화 가운데 영적열매가 풍성한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소서.
- 5.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지키며 다스림으로 이상기후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소서.
- 6.정치와 경제 등의 불확실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부의 지도자들과 각 지방의 새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소서.
- 7.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주기도문: 다같이